



100년 만의 폭설이 쏟아진 강원 삼척지역에 14일 또다시 눈이 내리는 가운데 한 주민이 축사 지붕 위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 1m에 또 40cm '雪上加雪' ... 강원~부산 대설주의보 영동·영남 '용단폭설'

### 146가구 310명 사흘째 고립무원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강원지역에 1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진 데 이어, 14일 강원도와 경상도 일부 지역 등에 또다시 수십 cm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추가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제설작업이 미처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눈 폭탄'이 또다시 쏟아지면서, 고립마을·시설물 파손 등 피해 복구가 장기화될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다.

◇ 또 다시 '눈 폭탄' =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동해는 이날 밤까지 약 40cm로 가장 많은 적설량을 보였으며, 강원도의 많은 지역이 10~30cm의 눈이 내렸다. 이날 경상 동해안 지방도 북동기류가 유입되면서 대부분의 지역이 적게는 10~20cm의 눈이 내렸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강원(강릉 등 17곳), 경북(포항 등 13곳), 경남(창원 등 4곳), 제주·대구·부산·울산에 대설주의보를 발령했었다. ◇ 추가피해 우려 = 제설·복구작업

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시 폭설이 내리면서 시·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강릉·동해·삼척 등 동해안 일부 지역주민들은 이틀 전 내린 눈으로 차량을 빼내지 못하면서 도로로 출근했다. 또 각종 중장비를 투입해 주요도로와 농어촌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재개했으나 146가구 310명은 사흘째 고립무원 상태다. 특히 강릉·삼척·태백 등 7개 시·군 125개 노선의 시내·농어촌 버스는 일부 구간에 대한 운행을 중단하거나 단축운행을 하고 있다.

피해도 눈 덩어리처럼 불어나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주택 반파 17채를 비롯한 비닐하우스 331동, 축사 35동 등 400곳의 시설물이 무너졌고 어선 27척 등이 파손돼 재산피해 규모가 70억~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강릉지역 옥계면과 구정면, 사천면 연곡면, 송정동 등 파프리카 비닐하우스 230동 8만㎡가 무너져 13억

7000만원의 피해가 났다. 시·군별로 피해 조사가 본격화되면 피해액은 이보다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14일 눈이 추가로 내리면서 피해 복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제설작업도 힘든 실정이다. ◇ 피해 복구 총력 = 강원도는 공무원·민간인·군인·경찰 등 인력 4만 6000명과 1924대의 5t 화물차·그레이더·굴삭기 등을 투입해 교통통제를 포함한 주요 국도·도심 도로 등 두절 구간에 대한 집중 제설 및 복구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주택·축사·농림시설 등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총력 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고립마을에 대한 진입로 확보에 전력을 쏟고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14일 폭설로 인해 휴무조치를 전격다행했다. 현대차는 이날 밤 9시부터 시작하는 울산공장 야간조에 대해 휴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공장내 차량을 생산하는 5개 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이 모두 멈추고 1만5000여명의 야간조 근로자는 모두 쉰다. /연합뉴스

### '충장축제' 동구·코레일 패키지 관광 상품 출시

광주시 동구(청장 유태명)가 대표적 거리축제인 '추억의 7080 충장축제'의 활성화와 함께 코레일(Korail·한국철도공사), (주)하나투어와 손잡고 패키지 관광상품을 출시한다.

동구는 오는 17일 오후 3시30분 청사 3층 상황실에서 코레일, 하나투어와 '제8회 추억의 7080 충장축제' 패키지 관광상품 출시를 위한 협약(MOU) 체결식을 갖는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충장축제 관광상품은 관람객들이 광주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연계하는 것은 물론, 축제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무등산, 담양 소쇄원 등 인근 관광지를 묶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2011년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선정된 '제8회 추억의 7080 충장축제'는 '추억&희망'이라는 주제로 오는 9월27일부터 10월2일까지 6일간 개최된다. /양수현기자 yang@

### 북구청 '재래시장 상품권' 시골 당직수당 일부 대체 직원들 발끈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공무원 출근수당 어렵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기치로 내세운 광주시 북구가 '당직수당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제' 시행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14일 북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12월 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 직원(공무원 수 900명)을 대상으로 1억6000만원(속직 5만원, 일직 7만원)의 당직수당 중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당초 구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3개월 간 시범운영한 뒤,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도 등을 평가해 오는 4월 1일부터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시범 운영에 착수하지도 못해 본격 시행은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다. 공무원들의 반발 이유는 전통시장 상품권 특성상 사용처가 말바우시장·서방시장·운암시장(이상 북구)·대인시장(동구)·양동시장(서구) 등 5곳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7급 기준 연중 당직일 수가 평균 5일인 점을 감안하면 1명당 당직수당은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35만원선이다. 결국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1년 동안 30~35만원 정도의 당직비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받는 셈이다. 공무원 김모(45·행정 7급)씨는 "당직을 선 뒤 받은 돈인데, 이를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실용 상품권으로도 받더라도 사용처가 한정돼 있어 불편함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만 양보해준다면 대형마트에 인지를 빼고 오는 4월 1일부터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시범 운영에 착수하지도 못해 본격 시행은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다. 공무원들의 반발 이유는 전통시장 상품권 특성상 사용처가 말바우시장·서방시장·운암시장(이상 북구)·대인시장(동구)·양동시장(서구) 등 5곳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7급 기준 연중 당직일 수가 평균 5일인 점을 감안하면 1

해돋이 07시 20분  
해질 18시 14분

달출 14시 48분  
달질 04시 36분

### 오늘 날씨

낮부터 포근

대체로 맑겠다.

도시	날씨	최고/최저
광주	맑음	-6/6°C
목포	맑음	-6/5°C
여수	맑음	-3/6°C
나주	맑음	-8/7°C
완도	맑음	-6/8°C
구례	맑음	-9/8°C
해남	맑음	-8/7°C
장흥	맑음	-8/8°C
순천	맑음	-5/8°C
영광	맑음	-8/5°C
진도	맑음	-6/7°C
전주	맑음	-8/7°C
군산	맑음	-7/4°C
남원	맑음	-11/7°C
속산도	구름점차적어짐	-1/2°C

구분	방향	파고	제감지수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주의	보통	낮음
	북서~북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주의	보통	낮음
	북서~북	2.0~3.0m			

구분	방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목포 12:00	04:39
	북서~북	0.5~1.5m	23:54	17:46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여수 07:13	00:31
	북서~북	1.5~2.5m	19:17	13:2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6(수)	17(목)	18(금)	19(토)	20(일)	21(월)
날씨						
최저/최고	-5/8	1/6	-1/8	1/8	0/9	0/10

### 여수산단 석면 폐암 노동자 2심도 승소

양측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씨는 여수산단 정유업체와 석유화학업체 등에서 16년간 비계공으로 일하다 지난 2006년 폐암이 발병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을 심의 의뢰하고 소송을 벌이다 지난 달 투병 중 사망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해 2월 17일 여수산단에서 비계공으로 일한 이씨의 폐암은 석면 노출 등으로 발병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정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 박성태기자 mihang@

양측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씨는 여수산단 정유업체와 석유화학업체 등에서 16년간 비계공으로 일하다 지난 2006년 폐암이 발병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을 심의 의뢰하고 소송을 벌이다 지난 달 투병 중 사망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해 2월 17일 여수산단에서 비계공으로 일한 이씨의 폐암은 석면 노출 등으로 발병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정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 박성태기자 mihang@

### 광주YMCA 사무총장 안평환씨

YMCA맨으로 금남로회관 관장대행·서구문화센터 관장·장진군 다산수련원 관장 등을 역임했다. 안평환 신임 사무총장은 "그동안 광주YMCA는 백화점식 사업을 전개했는데, 이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면서 "조직 내실화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취임식은 오는 3월3일 오후 6시 광주YMCA에서 열린다. /양수현기자 yang@

www.oknwood.com

## 편백나무는 무병장수의 나무입니다.

편백나무는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 ▶ 베게 (편백나무씨앗+결명자씨앗)
- ▶ 베개 (편백나무씨앗+결명자씨앗)
- ▶ 편백나무베개
- ▶ 편백나무베개

목조주택 & 리모델링 전문업체  
친환경 제품 | 각종 내장재  
편백나무 인테리어 시공 전시장 2층 | 편백가구 전시장 4층

▶ 판매품목: 장농 · 5단서랍장 · 수납공간 · 불박이장 · 축육기 · 독서대 · 책상 Set(의자·책꽂이) · 침대 · 샵통 · 편백베개 · 베개 (편백 씨앗 + 결명자 씨앗) · 편백가습기 수액

편백나무 인테리어 상담 및 편백주문제작 | 판매 및 창업문의 전국·전남북·시·군 대리점 모집 010-3609-4321

광남종합목재건축사주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4-26  
TEL: (062) 652-2935 · 2223 FAX: (062) 651-5141

PREMIUM BUFFET

##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완비)

- ◆ 홀 : 연인, 친구, 가족(2인석, 4인석, 6인석)
- ◆ 소모임(룸) : 직장회식, 계모임(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 대모임(룸) :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